

치 사

노동부장관
정 한 주

오늘 84년도 대한산업보건협회 정기총회에 본인이 치사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나라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일념하에 협회를 이끌어 오신 조규상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여러분의 학구적인 정열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끊임 없이 발전하여 이제는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전문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을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 하겠다는 여러분의 강렬한 의지의 결실이라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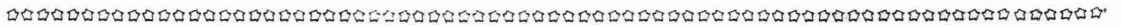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나라는 버마 암살복발사건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이제는 복지사회건설과 선진조국의 창조라는 국가적 과제를 온 국민의 화합으로 선진국 대열에 한발 더 가까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과 공법이 개발도입되고 여러가지 새로운 물질이들어 새롭게 제조 또는 사용되게 됨에 따라 각종직업병이나 산업재해는 계속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만 해도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390 만명중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6천3백여명의 직업병 이환자를 포함하여 모두 15만7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은 직접, 간접손실을 합해 약 5천9백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전국의 410 만 근로자들이 입은 재해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은 얼마나 큰지 쉽게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산업재해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은 물론 당해 기업과 나아가서 국가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때 정부와 기업근로자 모두가 산업재해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자신의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82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한데 이어 83년도에는 동법시행에 따른 제반 규정과 규칙등을 제정



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이의 강력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모든 시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산업재해예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지기는 어려운 것이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율적노력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수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재해예방사업을 우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에 중점을 두고 다음 시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첫째, 사회전반에 걸쳐 인명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기업주 스스로가 기업경영에서 안전보건사업을 최우선화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것이며 동시에 사업주 스스로가 자율적인 안전보건업무를 추진할수 있도록 사업장에 보건관리자 및 유자격 보건담당자의 배치를 촉구하고 아울러 보건관리자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귀협회는 회원 여러분과 보건관리자 여러분들이 전문성 있는 어려운 직무를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간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주셔야 할것입니다.

둘째, 기업의 자율적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적극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82년부터 각종 조세 감면 제도를 만들어 산업재해예방투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혜택의 정도와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재정적으로 어려워 안전보건시설 개선이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년부터 향후 5개년 매년 20억원의 시설개선 자금을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용자를 해주도록 해 나갈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예방사업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귀협회에 작업환경측정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할것이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지원 금액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귀협회는 각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계획에 적극 참여 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작업환경개선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등 패적한 작업환경조성에 적극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근로자 정기 건강진단에 대한 올바른 이념을 정착시켜 불실검진을 방지 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을 관계법령에 의해 실시해온지가 20여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이를 둘러싼 잡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조기조치한다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병원 운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있는가 하면 저렴한 수가를 지불할 목적으로 불실 검진을 조장하는 사업주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사례는 밝은 내일을 위해 다소의 아픔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노력에는 한계가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보건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민간 단체인 귀협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특히 이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것입니다.

이제 귀협회는 보다 진정한 의미의 직업

성 질병예방 전문단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산업보건 전문가들의 지식과 능력을 수렴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므로서 우리나라 산업보건발전에 보다 큰 공헌을 하는 명실상부한 산업보건의 중추적기관으로 정착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귀협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것이며 정부가 귀협회에 거는 기대는 실로 막중하다 하지 않을수 없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과 정진이 있어야 할것이며 그 간의 다소 미흡했던 조직체제와 운영형태등을 보완하여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수요에 즉각 부응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갈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속에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이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복지사회건설의 지름길임을 다같이 인식하고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재해예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반미흡한 제도는 과감하게 고치거나 보완하여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84년도 대한산업보건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앞날에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며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 고 모 집 안 내

산업보건사업에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원고내용 — 사업장 보건관리 성공사례 (200 자 원고지 10 매내외)
 - 산업보건에 관한 수상 (200 자 원고지 7 매이내)
 - 산업보건에 관한 법령질의 (200 자 원고지 5 매이내)
-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고료를 우송해 드리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원고지는 200 자 원고지에 한글로 가로로 쓰시고 필요한 한자나 외국어는 괄호안에 기재하시고 집필자의 성명·주소 및 소속기관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당 협회 본부 회보편집실